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내년 국민연금 위탁운용 규모 100조원

□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내년도 위탁운용* 규모가 올해보다 약 26조원 늘어난 100조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.

○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내년 중 국민연금기금 금융 부문 전체자산 336조원의 29.9%인 100조 4천억원을 위탁운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올해 위탁운용 비중인 23.2%에서 6.7%p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힘.

○ 내년말 전체 위탁운용의 규모로 결정된 100조 4천억원은 지난 10월말 기준 74조 3천억원보다 6.2%(26조 1천억원)가 증가한 것임.

* 국민연금은 외부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과 운용효율성을 통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투자결정을 분권화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를 위탁운용함.

□ 국내주식, 국내채권, 해외채권은 위탁운용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으며 해외주식은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.

○ 가장 규모가 큰 국내주식은 위탁운용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탁운용 비중을 전년대비 5%p 증가한 55%로 결정했으며 이는 10월말보다 9조 8천억원 늘어난 33조 2천억원 규모임.

○ 국내채권도 회사채 등 신용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운용 비중을 전년도 6%에서 2.5%p 늘리기로 했고, 해외주식은 작년말부터 직접 운용을 시작한 만큼 급격한 비중확대를 지양하기로 하고 전년대비 동일한 비중 목표를 설정함.

○ 해외채권은 낮은 금리의 미국 국채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률은 더 높으나 리스크가 있어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신용물과 이머징국가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운용 비중을 올해 40%보다 20%p 증가하기로 결정함.

○ 국내외 대체투자는 대부분 위탁운용을 통해 집행되는 만큼 위탁운용 비중을 올해 72.5%에서 7.5%p 늘릴 계획임.

□ 위탁운용 비중의 허용범위는 올해와 같은 $\pm 10\%p$ 수준이 유지되며,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기대수익률 외에 추가로 달성해야 할 목표초과수익률은 올해와 같은 0.45%로 결정함.

(국민연금 내년 100조원 위탁운용 등, 연합뉴스 등, 12/23)